



# 손으로 보는 세상

2009. April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무료 안마 시연 및 점자명함 갖기’ 행사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P&G는 ‘무료 안마 시연 및 점자명함갖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총 10명의 시각장애인 헬스키퍼(health keeper)가 한국 P&G 임직원 50여명을 시술했고, 50여명의 직원이 2,500여장의 명함에 점자를 찍었습니다. 안마를 받은 한국 P&G 직원들은 “정말 개운하다, 계속 받으면 좋겠다”라며 큰 호응을 보였고, 헬스키퍼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의 우수성을 알리고, 헬스키퍼의 고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21조 3항의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조항을 '규제일몰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재검토 기한으로 설정된 5년 내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폐기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계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장차법의 규제일몰제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결과 정부는 3월 13일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 시청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규제일몰 적용 제외 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송 뿐 아니라 출판, 영상, 통신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차법 제21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 ▶ NEWS ALBUM

노원구청에서 점자명함받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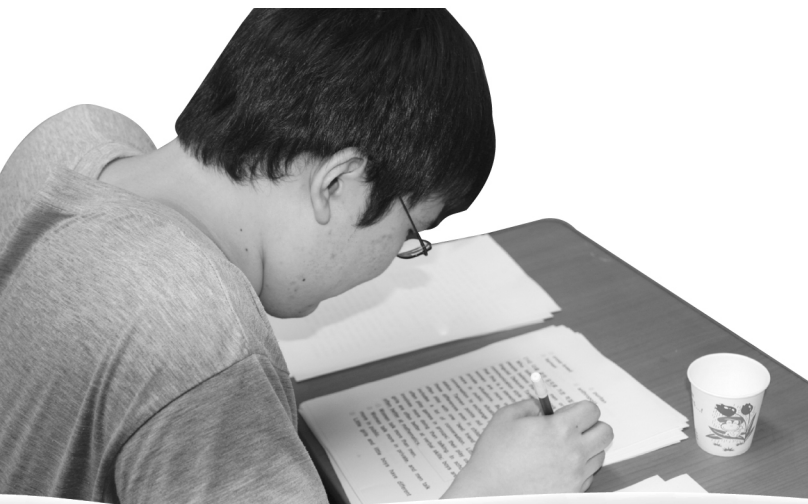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는 여성부에서 시행하는 2008년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수행 기관 중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4월에 있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공직진출대비반에서 모의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 CSUN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Conference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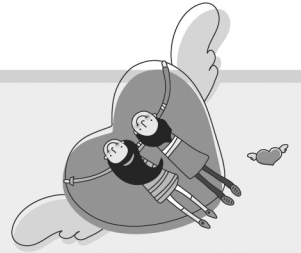
제24회 CSUN Conference가 미국 LA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CSUN Conference는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보조공학 기술 및 보조기기 전시회로서 약 170여개의 보조기기 생산업체가 참가하는 국제 컨퍼런스로서 매우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특히 이 컨퍼런스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보조기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개 업체(힘스코리아, 보이스아이)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의 경우 우리 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현지 유학 중인 학생 등 약 30여명의 한국 인원이 방문하여 예년에 비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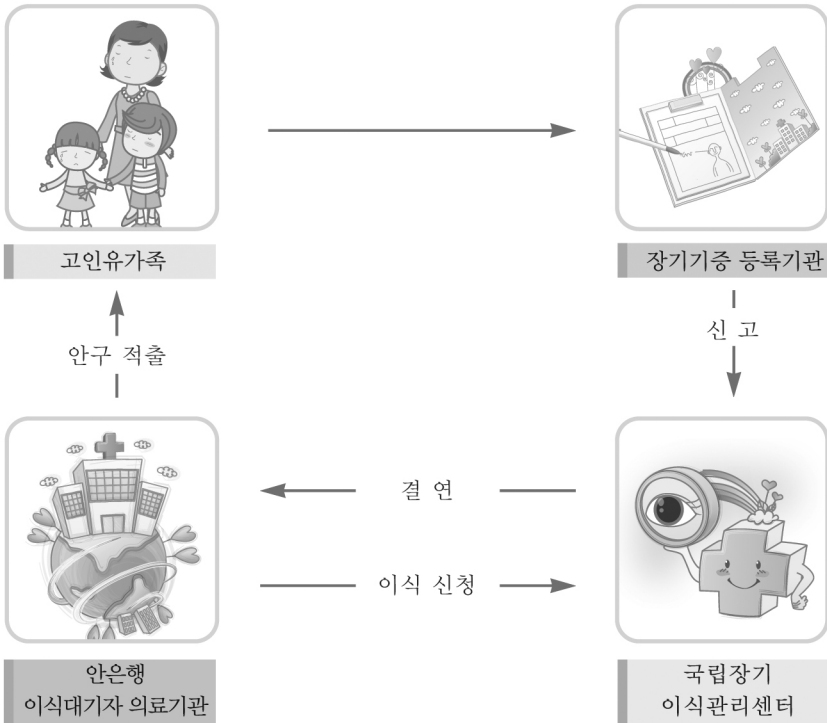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세요 - 각막기증

각막 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각막을 기증하려면 3세에서 8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생존시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심장사 또는 뇌사판정 후 가족의 동의하에 기증이 가능합니다. 시력이나 근시, 색맹 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시신에도 아무런 훼손을 주지 않습니다. 단, 전염성질환(간염보균자, 에이즈, 패혈증 등)으로 인한 사망과 라식수술자의 경우에는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 •• 각막기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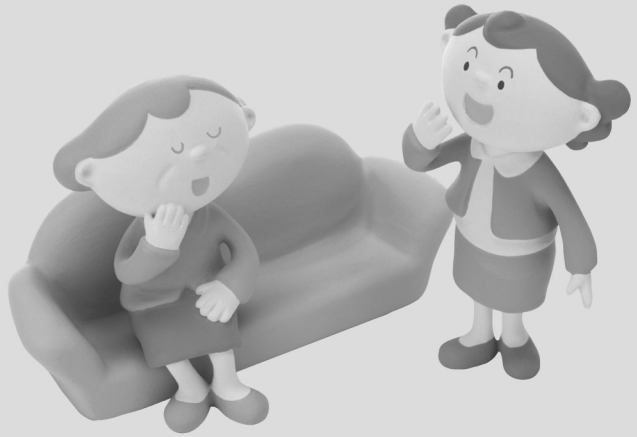
각막은 사후 6시간 이내에 적출해야 하므로 빠른 시간 안에 기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막은 기증수가 많지 않아서 보통 기증자 1인에게서 2개가 적출되어 시각장애인 2인에게 각각 하나씩 이식됩니다.





##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안내할 때 아니면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자리를 떠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누구나 허공에 대고 이야기 하게 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리를 비우는 당사자가 말없이 일어섰다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사람들이라도 주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2조, 법인세법 제18조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문의전화: 02-9500-104)

계좌번호 우리은행 : 1006-601-227253 (예금주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5권 4호 통권 105호

2009년 4월 1일 발행

발행처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 02-9500-136 \_ 팩스 : 02-934-8069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 139-831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시계방향 : 1.점자명함갓기 행사에서 점자명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이노근 노원구청장  
2.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  
3.CSUN Conference에 전시된 보조기기  
4.헬스키퍼의 안마를 받고 있는 한국P&G 직원